

보도	2025.2.19.(수) 11:10	배포	2025.2.18.(화)		
담당부서	IT검사국 검사기획팀	책임자	국 장	유희준	(02-3145-7420)
		담당자	팀 장	안태승	(02-3145-7415)

## 디지털 운영·복원력 강화를 위한 은행권 CIO 간담회 개최

### I 간담회 개요

- '25.2.19일(수) 금융감독원은 은행 CIO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
  - 은행권의 디지털 운영·복원력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과 전사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,
  - 은행권 IT부문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·논의하였음

#### 은행권 CIO 간담회 개요

- 일시 / 장소 : '25. 2. 19.(수) 11:10~11:40, 은행회관(은행연합회)
- 주요 참석자
  - (금융감독원) 이종오 디지털·IT 부원장보(주재), IT검사국장
  - (은행권) 국내은행(18개) 및 은행연합회 CIO

### II 간담회 논의 내용

#### 1. 디지털 운영·복원력 강화 추진계획

- 최근 금융부문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, 망분리 등 금융IT 규제체계는 “규칙→원칙 중심”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어 IT인프라 운영·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
  -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「내부통제·자율시정\*」과 감독 당국의 「상시감시·검사」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선순환할 수 있도록 IT검사체계를 운영할 계획

\*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IT리스크를 진단·관리하고 미흡사항을 개선

- 또한 은행권 재해복구센터가 실질적인 서비스 복원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성능 강화, 부하 테스트 수행 등 가용성 검증 및 전산자원 긴급 증설체계 수립 등을 추진하는 한편,
- 금융지주 전체 계열사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재해복구훈련을 실시하여 IT회복 탄력성을 검증하고 비상대응 역량을 제고할 예정

## 2. 주요 당부사항

- 이종오 디지털·IT 부원장보는 “디지털 운영·복원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IT운영·통제뿐만 아니라, 신기술 활용 등으로부터 파생되는 신규 IT리스크\*에 대한 선제적 대응 또한 중요”함을 강조

\* 중요IT 제3자 리스크, S/W 공급망 보안(오픈소스 등), 망분리 규제완화에 따른 보안 등

- ① 먼저 금융회사의 IT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최근 금융업권과 함께 마련한 「IT감사 가이드라인\*」에 지속적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면서,
  - \* 금융회사의 체계적인 IT내부통제 운영 및 효과적인 IT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기준(25.2.13.)
  - 동 가이드라인이 금융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은행권역에서 실효성 있는 운영을 통해 모범사례를 남겨줄 것을 요청
- ② 또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해복구센터의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디지털 복원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면서,
  - 재해·재난상황시 은행권의 위기대응 능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대외 연계서비스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재해복구 훈련 실시를 당부
- ③ 아울러 '25.2월 「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」 개정으로 전자금융사고 보고의무가 강화\*되고, 중대사고 분류기준이 구체화되었으므로,
  - \* 사고발생 업무(시스템)명, 사고영향 이용자수, 외부요인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원인제공 회사명 등 사고 관련 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변경
  - 앞으로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개편된 기준에 따라 신속 보고하여 금융IT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로 전이되거나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

- ④ 마지막으로, 생성형AI 등 IT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만큼이나 IT안전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하면서,
- 신규 IT리스크에 대한 자체 위험도를 평가하여 관련 보안통제를 강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

### 3. 업계 발언 요지

- 은행권역에서는 재해·재난상황 시 필수업무에 대한 연속성 확보 및 복원력 검증을 위한 노력과 훈련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밝힘
  - 아울러, 「IT감사 가이드라인」을 적용하여 자체 IT리스크에 상응하는 견고한 IT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,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전자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언급

### Ⅲ 향후 계획

-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금융회사의 디지털 운영·복원력 강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
  - 금융회사가 스스로 IT리스크를 자율점검·시정하고,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율시정 결과를 점검·피드백하는 체계를 확대해 나가고
  - 핵심업무 중심의 비상계획조정 및 전산센터 구조개편 등 리스크 관리 체계의 단계적 개선을 통해 IT복원력 강화를 유도
- 한편, 전자금융 장애·오류, 정보유출 등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전산사고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고검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는 등 시장 규율을 확립해 나갈 예정